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보도일시	25.05.19.(월)	배포일시	즉시 배포
문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원국 / 02-6788-3201, 3631 장정옥 선임비서관(박주민 의원실) / 010-6788-5732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주거본부 금융위원회 공식출범

오늘(5/19) 국회에서 서민금융 정책대안 제시 위한 금융위원회 출범

서민금융 안정화 전략수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주거본부 금융위원회가 오늘(5/19) 공식 출범했다.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출범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생살리기본부 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김경배 총괄부본부장을 비롯해 금융주거본부 이현욱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12명, 박정만 변호사 등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위원회는 <절망의 빛에서 희망의 빛으로> 라는 주제로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제안했던 서민금융 지원체계 재정비,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 정책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가산금리와 코로나 부채 현안에 추가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새 정부의 금융정책 수립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태연 공동본부장은 “민생살리기본부는 당의 주요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연

장선상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올해 초 제시한 많은 정책과제들 공약에 반영됐다.”
고 말했다.

민병덕 수석부분부장은 “이재명 후보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아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정책대출 채무조정 및 일부 채무탕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며 “후보의 금융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겠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참석자가 “금융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책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금융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며 “금융위원회가 그런 정책 수립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뜻을 모았다. 또한 서민금융과 경제에 강한 이재명 후보의 면모를 부각해 대선승리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

[행사 사진]

